

‘미니촌’에서 유기농업의 ‘큰 그림’ 그린다

— 촌민 13명 서란시 개원진 대흥촌, 서정복 서일광 부자의 유기입쌀 불티나게



▲ 랑태은 회장과 서일광 서기, 서정복 회장이 대흥촌촌민위원회 앞에서 (왼쪽부터)

최고 130명 샷군으로 22헥타르 유기벼 고집하는 ‘미니촌’

“김매기철에 최고로 130명 샷군이 저의 논에서 김을 때는 모습은 말 그대로 가관이지요. 22헥타르 논에 전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약 한방울, 화학비료 한줌 뿌리지 않습니다. 모내기, 벼가을 등도 전부 인공으로 합니다. 작년 한해 인건비만 저그만치 25만원 남짓 들었습니다.”

최근, 기자 일행이 찾은 서란시 개원진 대흥촌에서 촌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서일광 (35세)은 이같이 소개했다.

현재 마을에는 촌민이라고 해봤자 6가구에 13명이 전부이다. 그중에서도 로인이 10명이나 되어 서정복 일가의 샷군은 전부 린근 마을의 촌민들이라고 한다.

기자들과 동행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랑태은 (80세) 회장은 촌로인협회 서정복 (69세) 회장이 촌당지부 서기를 지내던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내가 재직시절에 향당위 서기만 13년을 해서 잘 알지요. 서란시에 조선족촌이 최고로 33개까지 됐는데 현재는 12개가 남았어요. 서정복 회장에게 가장 탄복하는 점은 현재 전 시에서도, 가능하게 전 성에서도 가장 작은 이 촌이 다른 촌에 합병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굳건히 지키면서 수십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랑태은 회장은 서정복 회장을 이같이 평가한다.

서란시의 많은 조선족촌들에서는 ‘도화향’ 브랜드 벼를 심고 있다. 서일광 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논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주지 않기엔 헥타르당 생산량은 다른 촌보다 훨씬 적다. 다른 촌들은 헥타르당 생산량이 보통 벼로 1만 5,000근에서 1만 6,000근 사이인데 서일광네 유기농 벼는 헥타르당 1만 1,000여근 남짓 밖에 안된다.

대신 그들은 유기입쌀의 좋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 비싼 가격에 승부수를 두었다. 보통 입쌀 가격이 근당 5.6원에 그치는 반면, 그들의 유기입쌀은 주머니 포장의 경우 10근짜리 100원에 판매하고 진공포장의 경우, 근당 15원에서 최고 30원까지 팔리고 있었다. 특히 남방지역에서는 선물용으로 더욱 세련되게 포장한 30원짜리 입쌀이 15원짜리보다 더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길림지역에는 전부 무료로 발송하는 외 성내 기타 지역과 국내 다른 성에 발송할 경우에는 소정의 우편료가 붙는다고 서일광은 말했다.

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의 창고에는 벼매대가 가득 쌓여있다. 작년 생산량의 30% 가량 되는 양이다. 전부 다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대신 단골손님을 놓치게 된다면서 여름철에 대량의 주문이 재차 쏟아지면 정미하여 판매할 타산이라고 서일광은 말했다.

백년일우의 특대홍수와 함께 돌변한 마을의 현황

“촌에 63헥타르의 논이 있는데 제가 법인 대표로 있는 서란시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에서 3분의 1 이상을 부치고 있는 셈이지요.

2023년 백년일우의 특대홍수가 서란시를 덮었을 때 대흥촌도 빗겨가지 못했어요. 지세가 높은 촌민위원회 사무실이 물에 1.5미터까지 잠겼고 지세가 낮은 곳에 위치한 살림집들은 2미터까지 잠겼어요.”

서일광이 촌민위원회 사무실 외벽에 남아 있는, 2년전 특대홍수에 잠겼던 흔적을 가리키며 기자에게 소개했다.

서일광 서기와 그의 부친인 서정복 회장이 촌민들을 제때에 안전한 지역에 대피시킨 덕에 촌에는 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다.

홍수가 핏고 지나간 마을 주택은 전부 위험건물로 변했다. 그런 와중에도 서정복이 지은, 후에 촌에서 사들인 촌민위원회 사무실은 유독 끄떡없어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의 모든 시설은 전부 교체해야만 했다.

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의 농기계가 전부 홍수에 밀려가면서 생긴 30만원의 경제손실을 포함해 서일광 가정은 도합 8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친환경 전통적 농업으로 유기벼를 재배하여 판매하려는 그들의 신심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



▲ 서일광 서기가 진공포장 유기입쌀을 소개하고 있다.

홍수는 무정하지만 서란에서도 가장 작은 이 행정촌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와 경제적 지지는 줄지 않았다. 주택 보조금외에도 길이 500미터, 너비 4.5미터의 세멘트 도로를 부설해주었고 총길이 8,000미터, 너비 40~50센티미터, 높이 60~70센티미터의 세멘트 논도랑을 건설해주었으며 3천여미터 길이, 4미터 너비의 논판 세멘트 도로도 깔아주었다. 서일광에 따르면 2년이 안되는 사이에 저그만치 1,000여만원의 국가 자금이 투입되었다. 하여 마을에 남은 촌민들은 살기가 더 좋아졌을뿐더러 농사 짓기 또한 더 편리해졌다.

홍수의 침습으로 인해 촌에 있던 20여가구의 주택이 전부 위험건물로 전락되자 국가에서는 촌민들에게 가구당 63평방미터 규모 표준으로 6.3만원씩 주택 건설 보조금을 발급했다. 그중에서 6가구가 마을에 주택을 지은 외 나머지 촌민들은 장기간 외지나 외국

에 나가있는 관계로 보조금만 수령하고 자택지를 전부 촌민위원회에 바쳤다. 촌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다.

20세에 입당하고 28세에 촌서기 맡은 젊은 농군

서정복에 따르면 지난 세기 90년대 중후반에 촌에는 최고로 2개 생산대에 58가구, 187명 촌민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현재는 서정복 일가 4명을 포함해 도합 6가구에 13명 촌민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서일광의 어린시절 촌에는 같은 또래 친구가 7명이 있었는데 이젠 본인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13명의 촌민중에서 고중 3학년에 다니는 그의 동생과 서일광, 어머니를 빼고 전부 서정복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촌로인협회 회원이다.

2008년 서란시조선족제1중학교에서 고종을 졸업한 서일광은 여느 조선족 청년들과 다름없이 북경, 청도, 소주, 대련, 연태 등 국내 대도시와 연해도시에서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에 취직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갔다. 2010년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공산당의령도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공산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스무살의 나이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2014년 24살의 서일광은 귀향창업의 꿈을 안고 타지생활을 접고 대흥촌에 돌아왔다.

아버지의 농농사를 돕다가 2016년부터 촌의 감독위원회 주임을 맡았던 서일광은 2018년에 서란시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법인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28살의 서일광은 촌당지부 서기와 촌민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자금 유지하여 촌기업 건설하고 촌의 63헥타르 논 집중 경영할 터

현재 촌의 호적인구는 40가구에 140명이 고 실제 거주 촌민은 6가구, 13명에 그친다. 외지와 외국에 나가있는 촌민들이 자택지를 포기하자 서일광은 자금을 유지하여 부지면적이 2만여평방미터에 달하는 유기비료공장을 원래의 촌 자택지 자리에 건설하고 있다. 현재 1기 공사에 50여만원이 투입되었다. 공장이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되면 본촌뿐만 아니라 주변 향진의 촌촌에도 팔리게 될 것 같다며 서일광은 판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정복, 서일광의 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에는 400여평방미터의 비닐하우스가 5개 있는데 벼도 자람새가 좋다고 한다.

서일광은 올해까지 촌의 63헥타르 논에 대한 촌민들의 토지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가 확정되면 원래 다른 촌에 임대주었던 대흥촌의 남은 논까지 촌에서 집중 관리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때가 되면 부태가정농장유한회사는 대흥촌의 63헥타르 논에 전부 유기벼를 재배하게 되는데 샷군을 최소 300명은 고용해야 될 것 같다고 서일광은 말했다.

/유경봉 오건 기자



주춘희,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신임 회장에 당선



▲ 제 12기 지도부와 새로 선출된 제 13기 지도부 성원들 (좌로부터 오영애, 리경덕, 주춘희, 전홍수, 권오관, 최남규, 리춘영.)

4월 25일,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제 13기 제 1차 회원대회 (임기교체대회)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장춘시민위, 장춘시민정국,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길림신문사, 장춘시조선족여성협회, 장춘시조선족기업협회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대표 및 로인협회 대표 등 근 80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새로운 임기 로인협회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협회의 전임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주춘희 (72세)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며 전홍수 회장으로부터 회장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부회장에 오애화 (73세)와 리경덕 (77세), 비서장에 최남규 (68세), 감사에 리춘영 (75세)이 당선되었다.

행사는 국기 게양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전홍수 제 12기 회장이 제 12기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전회장은 “특수시기 영향으로 2년간 미뤄졌던 제 13기 임기교체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지난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전통 명절행사의 활성화, 《로인세계》와 《길림신문》 등 조선문 간행물의 예약 및 구독, 지역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강조했다.

이어 부회장 겸 비서장인 주춘희의 재무보고와 권오관 감사의 감사사업보고가 이어졌으며 오애화 부회장은 회비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회원들의 심의를 거쳐 제 13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었다. 총합표인자 협회 상무부회장인 림순철의 주관으로 진행된 투표 선거에서 제 12기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주춘희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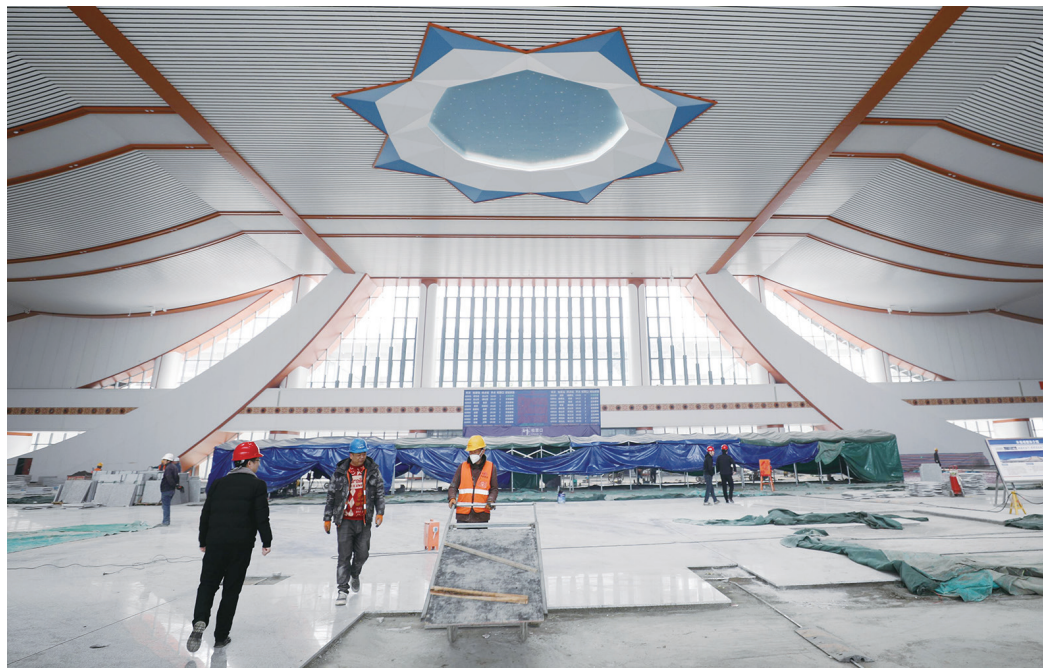
주춘희 신임 회장은 취임 연설에서 “재무 운영의 투명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복지와 문화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협회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회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로인협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 관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기존 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행사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새로 출범한 제 13기 지도부는 오는 5월에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봉 오건 기자



백산동역, 장백산 관광에 새로운 동력 주입



최근, 국가 쾌속철도망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심양-장백산 고속철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심양-장백산 고속철 연선의 중요한 공사인 백산동역이 공사의 95%를 완수하면서 개통을 앞둔 심양-장백산 고속철에 조력하고 있다.”고 대장건설 부경리 리적이 기자에게 소개했다.

심양-장백산 고속철은 룡녕성 동부와 길림성 남부를 종관하는바 심양, 무순, 통화, 백산, 연변 및 장백산관리위원회 등 6개 행정구를 연결한다. 동북 동부지역의 출입 통로로 목단강-가목사, 목단강-장백산, 할빈-가목사, 할빈-목단강, 할빈-대련, 장춘-길림, 길림-도문-훈춘 및 사평-통화철도와 함께 흑룡강성 및 길림성의 성내 쾌속객운송 철도순환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일대일로’에 깊이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국가전략의 효과적인 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백산동역의 총건축면적은 약 2만평방미터, 건축 높이는 25미터이며 주체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나뉜다. 백산동역 승차 플랫폼은 2개이고 6갈래 철도를 운행, 고효율 운영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킨다.

료해에 따르면 백산동역 건물 외관은 장백산의 모양을 본따서 건설했다고 한다. 중앙구

역은 넓은 유리벽으로 천지의 푸른 물을 형상화했으며 디지털 기술로 유리벽에 눈썹을 형성하여 장백산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랑쪽 구역의 흰색 알루미늄온 벽면은 눈 덮인 장백산 16개 봉우리의 모습을 담아 ‘천지가 장백산을 비추다’는 주제를 표현했다. 실내는 ‘봄에는 꽃을 구경하고 여름에는 천지를 보며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을 즐긴다’는 장백산 사계절 이야기를 공간의 구성구색에 표현했다.

백산동역은 빠스와 열차를 한곳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두개의 넓은 지하통로가 백산동역 앞 광장과 연결되어 시내버스 시스템과 고효율의 연결을 형성한다. 림체화된 교통구조를 통해 승객들의 ‘직접환승’을 실현하며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장백산의 자연을 담은 대기 공간은 여행객들이 편리함 속에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심양-장백산 고속철이 개통되면 백산동역은 동북 동부지역의 중장거리, 도시간, 관광 등 다층적 객운송 기능을 담당하면서 장백산 관광문화로서의 백산시의 지역 우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협동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하게 된다.

/정현관 류향희 오건 기자

